

소액자금 때문에

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마세요,

「불법사금융예방대출」이 있습니다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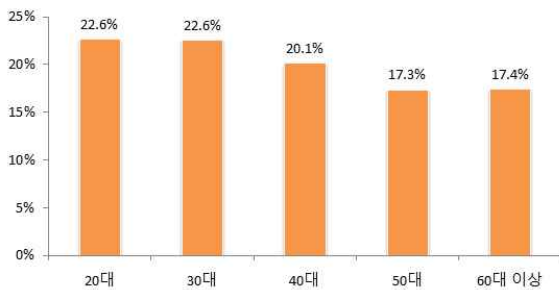
◆ ‘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’(25.2.28일 발표)에 따라 ‘25.3.31일부터 ‘(舊)소액생계비대출’ 제도개선 시행

- ① (명칭변경) “불법사금융예방대출”로 명칭을 변경하여 ‘불법사금융 예방’이라는 정책목적을 명확화
- ② (공급확대)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해 연간 공급규모를 2,000억원으로 확대
- ③ (한도상향) 최초 대출한도를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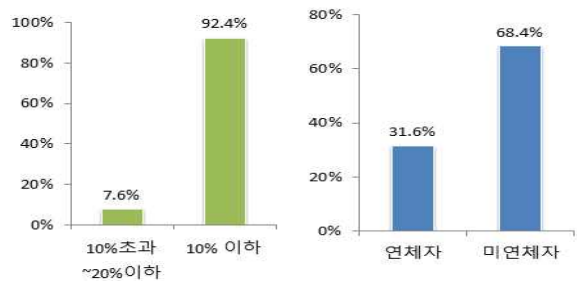
《불법사금융예방대출 운영 현황(‘23.3.27.~’25.2.28.)》

- ✓ (지원) ’25.2월말까지 25만 1,657명에 대해 총 2,079억원 지원
- ✓ (이용자) 소액(50만원) 이용자(81.0%), 신용 하위 10% 이하(92.4%),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(31.6%), 20~30대(45.2%)가 다수를 차지
- ✓ (연체율) 33.9%(’25.2월말 기준)

연령대별 이용자 현황(‘23.3.27~’25.2.28)



신용평점 연체유무별 이용자 현황(‘23.3.27~’25.2.28)



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 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'23.3.27일 “(舊)소액생계비대출”을 출시하여 '25.2월말까지 총 25만 1,657명에게 2,079억원을 지원하였다. 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% 이하자(92.4%), 일용직·무직·학생·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(69.0%)이 다수를 차지하는 한편,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(31.6%)도 이용하는 등 “(舊)소액생계비대출”은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.

다만, 최초 대출한도가 기본 50만원으로 다소 작아,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불법사금융 유혹에 취약할 수 있다는 현장의견이 있었다. 이에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①상품 명칭을 변경하고, ②공급규모를 확대하는 한편, ③최초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등, '25.2.28일 발표한 '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'에 따라 '25.3.31일부터 “(舊)소액생계비대출” 제도개선을 시행한다.

① 먼저, 이용자가 '불법사금융 예방'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“(舊)소액생계비대출”을 “불법사금융예방대출”로 명칭을 변경한다. '25.3.31일 이후 신규 최초대출(기본·추가)·재대출 이용자에 대해 명칭변경이 적용되며,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 및 만기연장,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. ② 또한, 어려운 경제 환경 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, 공급규모를 '24년 1,000억원에서 '25년 2,000억원으로 확대한다.

③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자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를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,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·주거·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*을 통해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. '25.3.31일부터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향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, '서민금융 잇다' 앱을 통한 대출한도 상향은 4월 중 시행 예정이다.

* 최초 대출시 50만원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(50만원) 가능하며, 특정목적(의료주거교육비 등)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한도(100만원) 내 지원 가능

“불법사금융예방대출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(국번없이 1397)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, ‘서민금융 있다’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(www.kinfa.or.kr)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.

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서민·취약계층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간금융권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	책임자	과 장	김광일	(02-2100-2610)
		담당자	사무관	강준모	(02-2100-2614)
	서민금융진흥원	책임자	본부장	최재학	(02-2128-8080)
		담당자	부 장	이정환	(02-2128-8170)







소액자금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마세요.

「불법사금융 예방대출」이 있습니다!

(舊소액생계비대출)

**비연체자는 용도증빙없이
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요!**

어떤 상품인가요?

소득의 일체비가 부족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안전한 정부서민금융상품입니다.

* 소액생계비대출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.

지원 내용이 궁금해요

대출원천	
주연체자	연체자
1억 500만원	1억 500만원 + 추가 500만원 <small>* 100만원의 한도</small>

* 연체자는 특약보증(보증·추가 대출)을 483,000원 이내로 가능

대출금리(연)	
100만원 이하	500만원 이하
12.833%	6.416%

* 금리규제 적용 또는 특약보증(추가 대출) 시 기준연(15.4%)

연이자율	
연 1만 7천원 이상한 (소득상환수수료 포함)	

* 연이자율 시 적용 연이자율 단가 2% 가능

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?

-  **신청 절차**
 - 시민금융센터 (국민은행) 1397
 - 온라인 예약 웹사이트 (loan.kinfa.or.kr)
 - 시민금융 상담 앱
-  **대금 수령**
 - 전국 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직거래연상금
-  **대출 신청**
 - 상담 후 대출 신청 및 약정, 실행까지 당일 진행
 - 추가 대출에 경우 4시간(주·일) 전사(앱)으로 신청 가능



시민금융지원센터
국민은행 1397



예약 웹사이트
(WEB)



시민금융 상담 앱
(APP)

참고 2

“불법사금융예방대출” 이용 현황 ('23.3.27~'25.2월말 기준)

□ 공급 : 251,657명(371,724건)에게 2,079억원 지원

▶ 건당 평균 이용액 : 56만원

▶ 연체율 : 33.9%('25.2월말 기준)

□ 이용자 주요 특성

▶ 이용 금액 : 50만원(81.0%)

▶ 신용도 : 신용평점 하위 10% 이하(92.4%)

▶ 연체 여부 :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(31.6%)

▶ 연령 : 20~30대(45.2%)

* 20대 이하(22.6%)→30대(22.6%)→40대(20.1%)→60대 이상(17.4%)→50대(17.3%)

▶ 직업 : 일용직, 무직, 학생, 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(69.0%) → 근로소득자(22.1%) → 사업소득자 (8.9%)

연령대별 이용자 현황('23.3.27~'25.02.28)



신용평점연체유무별 이용자 현황('23.3.27~'25.02.28)

